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9일(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담 당 자	• 장애인서비스팀장 김우여 ☎440-2936 • 담당자 유정옥 ☎440-2965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 발달장애인 234명 선정, ‘행복 GPS’ 보급, 실시간 위치조회, 안심존 지정 -
- 사용방법 등 ‘알기 쉬운 자료’ 제작해 사용자 편의 도모 및 사후관리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성근)에서 8월부터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행복 GPS’를 보급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SK하이닉스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센터는 그 동안 배회감지기 ‘행복 GPS’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아 발달장애인 234명을 선정했다. 또한 기기 사용방법, 응급호출, 안심존 등록 방법을 설명한 ‘알기 쉬운 자료’를 별도 제작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고, 향후 기기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복 GPS’ 보급 사업에 선정된 234명은 2023년 8월 30일까지 약 2년간 기기 및 통신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 ‘행복 GPS’는 손목에 차는 시계형태로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조회가 가능

하다. 보호자가 200m~5km 이내 최대 3개의 안심존을 지정하고, 미리 지정한 안심존에서 이용자가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이성근 센터장은 “ ‘행복 GPS’ 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알기 쉬운 자료’ 제작으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해당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p>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p> <h2>행복 GPS</h2>  <p>- 알기 쉬운 자료 -</p> 
「행복 GPS」 기기	「행복 GPS」 알기 쉬운 자료